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과 설득에 의한 성관계 동의 수준 평가의 성차: 연인 관계를 중심으로

양 동 옥[†]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최 이 슬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을 검토하였다. 연구 2에서는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 상대의 설득으로 성관계에 응할 때, 설득한 사람과 응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성관계 동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은 '불쾌감 표출과 조종', '관계 변화 우려', '접근과 설득',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의 다섯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남성의 행동으로, 남성 참여자는 '존중과 수용'을, 여성 참여자는 '접근과 설득'을 가장 높게 예상하였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여성의 행동으로, 남녀 참여자 모두 '존중과 수용'을 가장 높게 예상하였다. 또 남성이 여성을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여성 참여자는 남성 참여자보다도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고,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여성이 남성을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남성 참여자는 여성 참여자보다도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 각본과 인지부조화로 논의하였고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데이트 성폭력, 동의 수준, 성관계 거절, 성적 의사소통, 접근과 설득

[†] 교신저자 : 양동옥,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 062-530-0265 / E-mail : doyang@jnu.ac.kr

청춘 남녀에게 성관계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남녀 모두 '상대에게 매력을 느껴서'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서적 교감'과 '쾌락 추구'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청춘들은 성관계를 맺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며 상대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했다. 또 성욕을 표출하면서 육체적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했다(Meston & Buss, 2007). 성관계(sexual relation)는 종족 보존 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과 쾌락 추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행위에 무게를 두는 성교(sexual intercourse)의 표현보다도 정서와 육체적인 교감을 의미하는 성적 상호작용(sexual interaction)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윤가현, 양동욱, 2016). 친밀한 관계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성욕을 느껴서 합의를 통해 성관계한다면 서로가 만족스러운 성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 사람은 성관계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원치 않는 불일치한 상황에 종종 놓이기도 한다. 두 사람 간에 성욕 표현의 시기가 불일치할 때, 성관계 요구와 거절을 둘러싼 상반된 성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상대의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양동욱 2016; Shotland & Hunter, 1995).

친밀한 관계에서 한 사람의 성관계 제안에 다른 사람이 싫다며 거절할 때, 성적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는 대체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사람을 남성, 거절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간주한다. 성욕을 드러내고 성관계를 제안하는 일은 여성보다도 남성에게 적합한 행동이라는 사회 문화적 신념이 친밀한 관계의 성행동 상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Impett & Peplau, 2003;

Muehlenhard, 2011). 대부분의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서 빈번하게 성충동을 느끼고, 성충동을 느꼈을 때 성욕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여긴다(Beres, 2010). 남녀의 성욕 차이에 관한 이러한 믿음은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성역할을 기대하고 강화한다.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은 성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성역할을 학습한다. 반면에 여성은 성욕을 억압하고 남성의 성적 접근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객체로서의 성역할을 내면화한다(Emmers-Sommer, 2016; Wiederman, 2005). 결국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고 성관계를 제안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여성은 남성에게서 성관계를 제안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그 제안에 '좋다' 또는 '싫다'는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빈도가 높아진다(Impett & Peplau, 2003).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 역시 원한다면 동의한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를 받는 경우이다. 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남성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면 성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하게 되면 성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부분의 사회는 남성의 성욕은 적극성, 여성의 성욕은 수동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틀에서 여성의 성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왜곡된 믿음을 구성한다.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싫다'고 말하면 '글썸'의 뜻이고, '글썸'이라고 말하면 '좋아'의 뜻이며, 여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라고

말하면 '정숙한 사람이 아니다'고 해석해 버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Muehlenhard, 2011). 여성의 성적 의사소통을 바라보는 왜곡된 믿음은 남녀 모두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여성들이여, 정숙한 여성으로 평가받으려면 합부로 성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남성들이여, 여성의 거절은 진실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하면 여성도 결국 못 이긴 척 성관계에 응하게 된다.' 여성에게는 성욕을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남성에게는 여성의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양동욱, 2016).

성적 의사소통의 갈등을 다룬 연구는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상당수 여성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괜히 싫은 척 거절한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룬다. 하나는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거절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거절에도 남성이 성관계 하자고 접근하고 설득해서 두 사람이 결국 성관계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마지막은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응하는 내외적인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 주제들은 남녀 간의 성적 의사소통 방식과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성을 연결해서 접근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할 때, 여성이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는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 역시 성관계할 충분한 의향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행동을 '명목상 거절(token refusal 또는 token resistance)'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상당수 여성이 허울뿐인 거절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행동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여성의 거절 이유를 분석했는데, 여성이 세 가지 이유로 명목상 거절을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상대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상대가 성관계만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불신, 성 전파성 질환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나 임신 위험성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이었다.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죄의식, 성행위가 고통스러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은 '억제 관련 요인'이 두 번째 이유였다. 마지막은 성을 이용해서 상대를 애걸하게 만들고 통제함으로써 만남의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 상대에게 화가 난 일을 복수하려는 의도와 같은 '조종 요인'이었다.

Shotland와 Hunter(1995)는 여성의 거절 이유 모두를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가 주장하듯 문자 그대로 명목상 거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상대를 조종하려고 일부러 거절하는 행동은 명목상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만남의 관계성을 고려하거나 현실적인 불안과 위협 때문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명목상 거절이 아니라 진정한 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Muehlenhard와 Rodgers(1998)는 남녀를 대상으로 상대의 성관계 제안에 응하고 싶었지만 거절했던 일화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남녀 모두 만남의 관계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끝에 성관계를 거절하는 진정한 거절을 하고 있었다. 그 반면에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명목상 거절을 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성행동

상황에서 상당수 여성이 명목상 거절을 한다고 주장했던 이전 연구의 결과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성의 거절 이유가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지를 살펴본 양동옥(2015)은 성행동 시나리오를 남녀에게 제시하고 여성이 남성의 성관계 제안을 원하지만 거절한 이유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 이유는 여섯 가지였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순결 의식', 성욕을 표현했을 때 정숙함의 '성 규범'에서 벗어날지 모른다는 염려, 성을 이용해서 만남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조종'의 이유였다. 나머지는 성관계한 후에 상대의 마음이 식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태도 변화' 우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교감 부족', 안전하지 못한 환경, 성 전파성 질환과 임신의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의 이유였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순결 의식'과 '성 규범', '관계 변화'의 이유로 남성의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성행동 상황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여성의 거절 이유의 중요도 평가에서 남녀 모두 '교감 부족'과 '관계 변화'의 이유를 가장 높게, '조종' 이유를 가장 낮게 꼽았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순결 의식'과 '현실적 문제' 이유에,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서 '성 규범'과 '조종' 이유에 무게를 더 많이 두었다. 양동옥(2015)은 여성이 상대를 조종하려고 명목상 거절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면서 선행 연구(Muehlenhard & Rodgers, 1998; Shotland & Hunter, 1995)를 지지했다. 그러나 관계성이나 현실 상황을 고려한 끝에 결정한 성관계 거절

을 가치를 높이려고 일부러 텅기거나 주도성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해석해버리면 성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의 거절 이유를 분석한 공정식(2017)의 반복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조종하기 위해 명목상 거절을 할 가능성을 남녀 모두 가장 낮게 평가했지만, 여성의 거절을 명목상 거절로 해석하는 경향은 여성보다도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

여성에게 성관계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거절하더라도 그 거절의 진실성 역시 의심받을 때가 많다(Garcia, 1998; Winslett & Gross, 2008). 예로 Van Wie와 Gross(2008)는 데이트 성폭력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남성이 여성의 거절 이유의 진실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시나리오는 사귀지만, 아직 성관계하지 않은 사이에서 여성이 키스를 허락하는 조건과 여성이 가슴 애무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구분했다. 두 조건에서 남성이 더 강한 성적 접근을 하려 하자 여성이 '임신할까 두렵다', '진도가 너무 빠르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여성의 거절에도 남성의 성적 접근은 계속되고 여성이 '싫어, 그만해'라고 외친다. 남성 평가자는 녹음된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근을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고 판단할 때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받았다. 여성이 남성에게 가슴 애무를 허락했으면서도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거절할 때, 평가자는 그 거절의 진실성을 크게 의심하며 정지 버튼을 가장 늦게 눌렀다. 가슴 애무를 허락한 상황적 맥락에서 여성이 '진도가 너무 빠르다'며 거절하는 것은 허울뿐인 변명에 불과하다고 치부한 결과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키스나 애무를 허락한다면, 성관계도 허락한다는 신호

로 해석해버리는 그릇된 성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드러낸 결과로 볼 수 있다(Garcia, 1998; McMahon & Farmer, 2011).

‘여성의 거절이 진실한 거절인가?’에 관한 의심과 오해는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성관계 하자는 설득과 회유, 더 나아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DeSouza & Hutz, 1996; Muehlenhard & McCoy, 1991). 양동욱(2016)은 연인 관계의 성행동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설득 가능성’과 ‘성관계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시나리오는 사귀면서 아직 성관계하지 않은 조건과 성관계한 조건으로 구분했다.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관계 불확실’, ‘믿음과 신뢰 부족’, ‘부정적 평가 염려’, ‘애정 변화 우려’, ‘임신 위험’의 다섯 가지 이유로 거절할 때, 남성의 ‘설득 가능성’과 두 사람의 ‘성관계 가능성’을 참여자에게 예상하게 했다. 참여자 남녀 모두는 성관계 여부나 거절 이유와는 관계없이 남성의 ‘설득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예상했다. 또 여성이 ‘부정적 평가 염려’로 거절할 때 ‘성관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했고, ‘믿음과 신뢰 부족’으로 거절할 때 ‘성관계 가능성’을 가장 낮게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거절 이유의 진실성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정적 평가 염려’의 거절은 진실이 결여되어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믿음과 신뢰 부족’의 거절은 특히, 성관계하지 않은 사이라면 진실에 가깝기에 남성이 설득해도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성관계 가능성 평가는 거절 이유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남성 참여자는 거절 이유 대부분에서 ‘성관계 가능성’을 여성 참여자보다 더 높게 예상했다.

상대에게 성관계 제안을 받았을 때, 성관계

를 원치 않으면서도 응하기도 한다. 이를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unwanted consensual sex)’ 또는 ‘순응한 성관계(compliant sexual behavior)’라고 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성관계를 더 자주 경험한다(O’Sullivan & Allgeier, 1998; Sprecher, Hatfield, Cortese, Potapova, & Levitskaya, 1994). 여성이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에 응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성관계 강요로 인한 무력감 학습’이다. 일부 남성은 여성의 거절에도 성적 접근을 고수하거나 헤어지자며 감정을 조종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거절 의사를 표현한 후에 남성의 성관계 강요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여성은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atz & Tirone, 2010; Struckman-Johnson, Struckman-Johnson, Anderson, 2003).

두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남성의 성욕 표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응하게 된다(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Rickert, Sanghvi, & Wiemann, 2002).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여성은 남성이 강압적으로 성관계하더라도 그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손강숙, 정소미, 2016;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세 번째는 ‘성관계 경험’이다. 사귀면서 성관계를 했거나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의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하게 된다(유미영, 하정희, 2019; 유외숙, 박경, 2004).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데이트 규범으로 정형화하고 있다면,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원치 않더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 의무감으로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Impett & Peplau, 2003).

네 번째는 ‘애착 불안’이다. 연인 관계에서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며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상대의 욕구 충족에 몰입한다. 남성의 성욕을 채워주며 유대감을 높이려 하므로 자신의 감정은 차치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성을 희생하면서 남성에게서 관심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안지인, 고영진, 2014; 유의숙, 박경, 2004; Birnbaum, Reis, Mikulincer, Gillath, & Orpaz, 2006; Impett & Peplau, 2002).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성관계에 의존하는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자신의 성욕으로 혼동하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성의 성관계 요구를 좇아 성관계에 응할 위험이 있다(Birnbaum et al. 2006).

인간에게 성은 가장 개인적인 영역으로, 누구나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는 타인에게 강요당하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즉 개인에게 부여된 존엄한 가치와 행복 추구권이다(이은진, 2015). 연인 관계는 정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친밀성을 서로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상호 관계에서 상대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상대의 요구를 좇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기도 한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하고 싶은 욕구와 성관계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대립할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자율적으로 거부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려면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지은, 이은설, 2006; Loshek & Terrell, 2015; Morokoff et al., 1997). 이들은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능동적으로 성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원치 않는 성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원치 않는 임신과 성 전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성적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인 관계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접근은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있다.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성적 갈등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다.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원치 않아서 거절할 때, 남성이 여성의 거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지 의문이다. 남성이 여성의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한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을 다룬 선행 연구는 전통적인 성행동 도식을 적용해서, 주로 남성이 성관계를 제안하고 여성이 성관계를 제안받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문화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이 전개되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 태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윤가현, 양동욱, 2016). 또 현세대의 청년남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혼전 성교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김정애,

이정열, 2014), 성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 역시 주체적으로 성욕을 표현하기도 한다(이안나, 2013). 연인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남성 역시 경험하고 있다(Muchlenhard & Rodgers, 1998; Impet & Peplau, 2002).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연인 관계에서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원치 않아서 거절하는 조건과 여성의 성관계 제안에 남성이 원치 않아서 거절하는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갈등의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는 '상대의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 또는 '상대의 성관계 제안에 원치 않지만 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상대의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의 연구는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성 측면에서 상대의 거절에도 남성이 접근하고 설득하는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은 다양한 양상을 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은 어떠한지, 특히 남성이 거절당하는 조건과 여성이 거절당하는 조건에서 참여자들이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을 다르게 평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선행 연구의 접근처럼, 남성이 거절당한 조건에서 참여자들이 접근과 설득 행동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훈련과 더불어 존중적인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상대의 성관계 제안에 원치 않지만 응하는 상황'의 연구는 여성이 거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내외적인 관련 요인을 찾고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형법에 명시하고 있는 강간죄(제 297조)를 바탕으로 명백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 동의하지 않은 성 즉, 강간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성관계는 동意的 성으로 간주해왔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명백한 강간과 상호 동意的 성관계 사이의 연속선상에는 동意的 성관계처럼 보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위치하고 있다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공정식, 2017; 변혜정, 2003; 시사IN, 2019.03.04.). 변혜정(2003)은 규범화된 성역할에 따라서 '성별화된 섹슈얼리티'를 정의하며 여성이 순응, 이타, 강요의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성폭력의 연속선상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의 성관계 요구에 원치 않지만 응했을 때 '동意的 성관계인가?'의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과 상대의 설득으로 성관계에 응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성관계 동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성 참여자들이 남성 참여자들보다도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한다면, 동의를 해석하는 성차와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성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1에서는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예상 행동을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성

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성관계 가능성,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둘째,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남성이 거절당하는 조건/여성이 거절당하는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예상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특히, 남성이 거절당한 조건에서 여성 참여자는 남성 참여자보다도 거절당한 남성의 ‘접근과 설득’ 행동을 더 높게 예상하는가? 셋째,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성별 조건(남성이 여성을 설득하는 조건/여성이 남성을 설득하는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특히, 남성이 여성을 설득해서 성관계한 조건일 때, 남성 참여자는 여성 참여자보다도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 것인가? 또 남성 참여자는 여성 참여자보다도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 것인가?

예비 연구: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예상 행동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의 성관계 제안에 다른 사람이 싫다며 거절할 때,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이 이후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

예상 행동을 살펴보았다.

방법 및 결과

연구대상

광역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15명(남 53명, 여 6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미혼이고 이성애자였다. 남성 평균 연령은 22.33세($SD = 1.68$, Range = 19~27), 여성 평균 연령은 21.35세($SD = 1.43$, Range = 19~26)였다.

연구도구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예상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동욱(2015)이 사용했던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A와 B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이며 성관계한 사이입니다. A가 B에게 성관계 제안을 합니다. B가 싫다며 거절합니다. B의 거절에 A가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관계를 제안하는 A와 성관계를 거절하는 B의 성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A를 ‘이성’으로, B를 ‘동성’으로 생각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여성 참여자는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싫다고 거절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남성 참여자는 여성의 성관계 제안에 남성이 싫다고 거절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자유롭게 서술하였다.

문항 구성 절차 및 결과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참여자가 서술한 성관계를 거절당한 사람의 예상 행동을 세 명의 박사 학위자(심리학, 사회학, 신문방송학)가 읽고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 남성(23세)은 성관계를 거절당한 사람의 예상 행동으로 ‘이미 거절당한 상태이지만 계속 살살 다루면서 설득하려 하다가 그래도 거절하면 “나에 대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화를 낼 것 같다.’고 서술하였다. 이 글은 세 명의 평정자가 선정한 핵심 주제 간 일치 여부를 고려하여 ‘성관계 설득’, ‘상대의 감정 이용’, ‘상대에게 불쾌감 표출’로 선정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총 68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주제 68개를 유사한 의미로 묶은 결과, 성관계를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28가지가 나왔다. 그 행동을 연구자가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장이 핵심 주제를 잘 반영하는지 평정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문장을 수정하였다.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문항은 ‘나를 향한 상대의 애정과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과 의미가 유사해서 제외하였다.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87명(남 42명, 여 45명)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성관계를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였다. 표현이나 어법을 다듬어서 27개 문항을 최종 완성하였다.

연구 1: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요인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의 성관계 제안에 다른 사람이 싫다며 거절할 때,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요인을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광역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80명(남 150명, 여 2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미혼이고 이성애자였다. 여성 평균 연령은 21.43세($SD = 1.39$, Range = 19~27), 남성 평균 연령은 22.36세($SD = 1.54$, Range = 19~27)였다.

연구도구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

예비 연구에서 사용한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와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이며 성관계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둘만의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A가 B에게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B가 싫다며 거절합니다. A와 B의 성별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참여자가 생각한 대로 정하면 됩니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A의 예상 행동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자는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A가 각 행동을 얼마만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0점)’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6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약 70~80명 단위로 집단 설문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 주제를 '연인 간 성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소개하고 설문에 응하고 싶지 않거나 설문 주제가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설문지는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문항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참여자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문항 순서를 바꾸어 설문지를 세 종류로 만들었고, 참여자에게 무작위로 배부하였다. 참여자에게 설문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각 문항에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빠짐없이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설명과 설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사례($n = 7$)를 제외하고 총 380명의 자료를 요인분석하였다.

결 과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요인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이하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문항을 요인으로 축약하기 위해서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하기 전에 자료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계수(α)는 .89로 상당히 높았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은 .90으로 1에 가까웠다. 문항 간 상관을 검증하

는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하여($\chi^2 = 5731.07, p < .001$),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사용해서 고유값 1.0 이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여섯 번째 요인이 2문항으로 구성되고 설명 변량이 높지 않아서 요인 수를 5개로 고정한 후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27문항으로 구성된 5개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63.31%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상대를 일부러 자극해서 말싸움한다.', '나에 대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상대에게 화를 낸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변량의 15.22%를 설명하였다. 거절당한 사람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상대를 마음대로 다루려는 내용이어서 '불쾌감 표출과 조종'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내가 성적 매력이 없나 보다고 생각한다.', '나를 향한 상대의 애정과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변량의 15.10%를 설명하였다. 거절당한 사람이 자신을 향한 상대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내용이어서 '관계 변화 우려'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상대에게 정말로 성관계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며 접근한다.', '성관계하자고 계속 조르거나 설득한다.' 등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4.37%를 설명하였다. 거절당한 사람이 상대의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접근하고 설득하는 내용이어서 '접근과 설득'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알았다며 상대의 거절을 수용한다.', '상대에게 서로가 원할 때 성관계하자고 말한다.' 등 4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약 10.44%를 설명하였다. 거절당한 사

표 1.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동성
	불쾌감 표출과 조종	관계 변화 우려	접근과 설득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	
상대를 일부러 자극해서 말쑥해준다.	.80					.75
나에 대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상대에게 화를 낸다.	.77					.75
상대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76					.68
상대가 계속 거절하면 강압적으로 성관계하려 한다.	.67					.60
성관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예, 자위행위)으로 해결하겠다고 상대에게 말한다.	.63					.60
상대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겠다고거나 거절의 대가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55					.51
내가 성적 매력이 없나보다고 생각한다.		.80				.64
나를 향한 상대의 애정과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		.75				.69
상대에게 내가 성적 매력이 없는지 묻는다.		.75				.63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묻는다.		.65				.67
상처받아 의기소침하게 행동한다.		.62				.50
서운해서 상대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한다.	.54	.59				.70
상대에게 정말로 성관계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며 접근한다.			.82			.75
상대가 들어줄 것 같은 부탁(예, 안고만 있을게)을 하면서 한 단계씩 접근한다.			.80			.70
성관계하자고 계속 조르거나 설득한다.			.79			.77
상대가 일부러 튕기는(예, 밀당) 것으로 생각한다.			.57			.60
웃을 벗거나 야한 몸짓으로 상대를 유혹한다.			.55			.53
상대가 진짜로 싫어서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6			.49
상대에게 왜 싫은지 이유를 묻는다.			.43			.47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알았다며 상대의 거절을 수용한다.				.77		.68
한두 차례 설득해보고 상대가 계속 거절하면 받아들인다.				.74		.58
곧바로 상대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71		.69
상대에게 서로가 원할 때 성관계하자고 말한다.				.60		.54
상대가 지금은 성관계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며 화제를 바꾼다.					.86	.79
상대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달라고 한다.					.66	.64
혹시 내가 잘못된 일이 있는지 상대에게 묻는다.		.41			.57	.57
상대에게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 한다.					.54	.57
고유값	4.11	4.08	3.88	2.82	2.21	
설명변량(%)	15.22	15.10	14.37	10.44	8.18	
누적변량(%)	15.22	30.32	44.69	55.13	63.31	
내적 일관성 계수	.86	.86	.86	.73	.71	
문항 수	6	6	7	4	4	27

주.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임(N = 380).

람이 상대의 거절을 가능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내용이어서 ‘존중과 수용’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상대가 지금은 성관계하고 싶지 않나 보다 생각하며 화제를 바꾼다.’, ‘상대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달라고 한다.’ 등 4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8.18%를 설명하였다. 거절당한 사람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주는 내용이어서 ‘기분 배려’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α)는 높게는 .86부터 낮게는 .71까지였다.

연구 2: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과 설득에 의한 성관계 동의 수준 평가의 성차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양상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성관계 가능성, 성관계에 응한 사람과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광역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여학생 218명과 남학생 165명, 총 38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미혼이었고 이성에 자였다. 평균 연령은 남성 22.16세($SD = 2.02$, Range = 19~28)와 여성 21.38세($SD = 1.27$,

Range = 19~27)였다.

연구 도구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

연구 1에서 활용한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성관계를 거절당한 성별에 따라서 두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거절당하는 조건(이하 남성이 거절당할 때), 다른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거절당하는 조건(이하 여성이 거절당할 때)이었다. 시나리오는 성관계를 거절당하는 성별 조건을 제외하고 동일했다.

『남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이며 성관계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둘만의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싫다며 거절합니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남성의 행동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남성이 거절당하는 조건). 여성이 남성에게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싫다며 거절합니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여성의 행동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여성이 거절당하는 조건).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이 각 행동을 얼마만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척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은 연구 1에서 요인 분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7문항으로 5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요인은 ‘불쾌감 표출과 조종’ 6문항, 두 번째 요인은 ‘관계 변화 우려’ 6문항, 세 번째 요인은

‘접근과 설득’ 7문항, 네 번째 요인은 ‘존중과 수용’ 4문항, 다섯 번째 요인은 ‘기분 배려’ 4 문항이었다. 문항은 거절당한 사람이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0점)’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6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당한 후 그러한 행동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α)는 .88이었다.

설득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과 동의 수준

거절당한 사람이 설득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할 가능성’, 거절당한 사람이 설득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이하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그리고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이하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세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세 문항은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따라서 두 종류로 작성하였다. 먼저 ‘성관계 가능성’은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데도 남성이 설득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또는 ‘여성의 성관계 제안에 남성이 거절하는데도 여성이 설득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성관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0%)’에서 ‘성관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00%)’까지 10% 간격으로 11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은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데도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한다면,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또는 ‘여성의 성관계 제안에 남성이 거절하는데도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한다면,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0%)’에서 ‘전적으로 동의했다(100%)’까지 10% 간격으로 11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은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데도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한다면, 설득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또는 ‘여성의 성관계 제안에 남성이 거절하는데도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한다면, 설득한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0%)’에서 ‘전적으로 동의했다(100%)’까지 10% 간격으로 11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한 독립변인의 수준에서 다른 변인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이 내재되는, 또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이 내재되는 설계(nested design)를 하였다. 설문지는 거절당한 성별 조건(남성이 거절당할 때/ 여성이 거절당할 때)에 따라서 두 종류와 설문 응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참여자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문항 순서를 세 종류로 바꿔서 총 여섯 종류를 만들었다.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약 70~80명 단위로 집단 설문하였고 설문지는 참여자에게 무작위로 배부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 주제를 ‘연인 간 성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소개하고 설문에 응하고 싶지 않거나 설문 주제

가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설문지는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문항, 설득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과 성관계 동의 수준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참여자에게 설문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각 문항에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빠짐없이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설명과 설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25분 정도였으며,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사례($n = 9$)를 제외하고 총 3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예상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거절당한 성별 조건(A)에 내재된 참여자의 성별(B)의 2×2 다변량분석(MANOVA)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요인 중 ‘관계 변화 우려’($F = 33.99, p < .001$)와 ‘접근과 설득’($F = 140.02, p < .001$)에서 거절당한 성별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남성이 거절당할 때보다도 여성이 거절당할 때 ‘관계 변화 우려’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반면에 여성이 거절당할 때보다도 남성이 거절당할 때 ‘접근과 설득’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내용인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의 성별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이 거절당할 때(A₁)’를 보면, 여성은 남성 참여자보다도 거절당한 남성이 ‘불쾌감 표출과 조종’($F = 25.49, p < .001$), ‘관계 변화 우려’($F = 11.82, p < .001$) 그리고 ‘접근과 설득’($F = 38.89, p < .001$)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반면에 남성은 여성 참여자보다도 거절당한 남성이 ‘존중과 수용’($F = 8.26, p < .01$)과 ‘기분 배려’($F = 6.61, p < .01$)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거절당할 때(A₂)’를 보면, 남성은 여성 참여자보다도 거절당한

표 2.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에 따른 행동 평가

거절당한 성별 조건 (A)	참여자 성별 (B)	불쾌감 표출과 조종		관계 변화 우려		접근과 설득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	
		M	SD	M	SD	M	SD	M	SD	M	SD
남성이 거절당할 때 (A ₁)	남성($n = 81$)	0.95 ^d	(0.97)	1.73 ^c	(1.26)	3.18 ^b	(1.21)	4.14 ^a	(1.15)	3.44 ^b	(1.22)
	여성($n = 115$)	1.73 ^c	(1.28)	2.38 ^d	(1.46)	4.21 ^a	(1.20)	3.65 ^b	(1.28)	3.01 ^c	(1.08)
여성 거절당할 때(A ₂)	남성($n = 84$)	1.44 ^d	(1.00)	3.00 ^b	(1.36)	2.44 ^c	(0.97)	3.90 ^a	(1.18)	3.21 ^b	(1.11)
	여성($n = 103$)	0.98 ^c	(0.91)	2.67 ^c	(1.37)	2.15 ^d	(1.17)	4.32 ^a	(1.08)	3.42 ^b	(1.19)

주. M은 요인 평균(요인 총점/문항 수)이며 각 문항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0점)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6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함. M 값 옆 문 위첨자는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에 따른 요인 점수 차이를 나타냄.

표 3.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에 따른 행동 평가의 다변량분석표

독립 변인	종속 변인	SS	df	MS	F
거절당한 성별 조건(A)	불쾌감 표출과 조종	1.66	1	1.66	1.47
	관계 변화 우려	57.56	1	57.56	33.99***
	접근과 설득	184.56	1	184.56	140.02**
	존중과 수용	4.22	1	4.22	3.06
	기분 배려	0.72	1	0.72	0.54
참여자 성별(B) with 거절당한 성별 조건(A)	불쾌감 표출과 조종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거절당할 때(A ₁)	28.75	1	28.75	25.49***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거절당할 때(A ₂)	9.62	1	9.62	8.51**
	관계 변화 우려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거절당할 때(A ₁)	20.02	1	20.02	11.82***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거절당할 때(A ₂)	5.20	1	5.20	3.07
	접근과 설득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거절당할 때(A ₁)	51.26	1	51.26	38.89***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거절당할 때(A ₂)	3.86	1	3.86	2.93
	존중과 수용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거절당할 때(A ₁)	11.40	1	11.40	8.26**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거절당할 때(A ₂)	8.44	1	8.44	6.11*	
기분 배려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거절당할 때(A ₁)	8.72	1	8.72	6.61**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거절당할 때(A ₂)	1.86	1	1.86	1.41	
오차	불쾌감 표출과 조종	427.45	379	1.13	
	관계 변화 우려	641.81	379	1.69	
	접근과 설득	499.55	379	1.32	
	존중과 수용	523.43	379	1.38	
	기분 배려	499.60	379	1.32	

주. * $p < .05$, ** $p < .01$, *** $p < .001$.

여성이 ‘불쾌감 표출과 조종($F = 8.51, p < .01$)’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성은 남성 참여자보다도 거절당한 여성이 ‘존중과 수용($F = 6.11, p < .05$)’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에 따라서 거절당한 사람이 보일 행동의 상대적 크기를 다르게 예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요인 평균에 대한 주효과(Bonferroni) 비교를 하였다. 먼저 ‘남성이 거절당할 때’를 보면, 남성 참여자는 거절당한 남성이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와 ‘접근과 설득’, ‘관계 변화 염려’, ‘불쾌감 표출과 조종’ 순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에 여성 참여자는 거절당한 남성이 ‘접근과 설득’,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 ‘관계 변화 염려’, ‘불쾌감 표출과 조종’ 순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이 거절당할 때’를 보면, 참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거절당한 여성이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 ‘관계 변화 염려’, ‘접근과 설득’, ‘불쾌감 표출과 조종’ 순으로 행동할 것으로 유사하게 예상하였다.

설득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과 동의 수준 평가

‘성관계 가능성’과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r = .32, p < .001$)’, ‘성관계 가능성’과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r

$= .22, p < .001$)’,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과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r = .27, p < .001$)’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래서 설득한 성별 조건(A)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B)에 따라서 ‘성관계 가능성’,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2×2 다변량분석(MANOVA)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관계 가능성($F = 3.88, p < .05$)’,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F = 30.61, p < .001$)’,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F = 23.07, p < .001$)’ 모두에서 설득한 성별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남성이 설득할 때’보다도 ‘여성이 설득할 때’ 성관계 가능성을 더 높게, 또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여성이 설득할 때’보다도 ‘남성이 설득할 때’ 설득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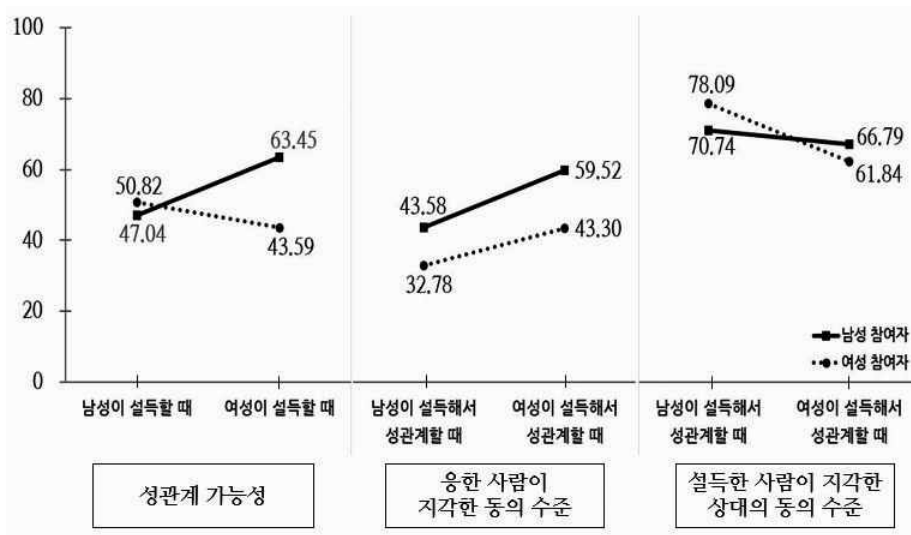


그림 1.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에 따른 성관계 가능성과 성관계 동의 수준 평가

표 4. 설득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 성별에 따른 성관계 가능성과 성관계 등의 수준 평가의 다변량분석표

독립 변인	종속 변인	SS	df	MS	F
설득한 성별 조건 (A)	성관계 가능성	1980.07	1	1980.07	3.88*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16416.28	1	16416.28	30.61***
참여자 성별(B) with 설득한 성별 조건(A)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9563.56	1	9563.56	23.07***
	성관계 가능성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설득한 조건(A ₁)	679.19	1	679.19	1.33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설득한 조건(A ₂)	18249.03	1	18249.03	35.73***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설득한 조건(A ₁)	5540.95	1	5540.95	10.33***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설득한 조건(A ₂)	12176.67	1	12176.67	22.71***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참여자 성별(B) with 남성이 설득한 조건(A ₁)	2564.80	1	2564.80	6.19*
	참여자 성별(B) with 여성이 설득한 조건(A ₂)	1129.57	1	1129.57	2.72
오차	성관계 가능성	193597.74	379	510.81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203229.92	379	536.23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157116.34	379	414.56	

주. * $p < .05$, *** $p < .001$.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내용인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내재된 참여자의 성별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이 설득할 때(A₁)’를 보면, 여성은 남성 참여자보다도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F = 10.33$, $p < .001$)했지만,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F = 6.19$, $p < .001$)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설득할 때(A₂)’를 보면, 남성은 여성 참여자보다도 성관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F = 35.73$, $p < .001$) 여성의 설득으로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F = 22.71$, $p < .001$).

논 의

서로에게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친밀성을 요구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이미 성관계했거나 성관계를 지속하는 관계라면, 상대의 원치 않는 성관계 제안에 주체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또 상대의 회유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거나 상대를 향한 미안함이나 죄의식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을 때, 그 성관계를

‘배려 행동’으로 포장하며 동의한 성관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연인 관계에서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unwanted consensual sex)’ 또는 ‘순응하는 성관계(compliant sexual behavior)’는 남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에게 수동성과 순응성을 강조하는 성의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의 영향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취약한 관계성에 놓여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절할 때 우리 사회는 거절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남성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하도록 잘못된 성적 의사소통을 부추긴다.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통적인 성 각본(traditional sexual script)을 적용하여 성관계를 제안하는 사람을 남성, 그 제안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관계구조에서 여성의 거절 행동을 평가하고, 성적 자기주장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에서 여성이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관계 제안에 상대가 싫다며 거절할 때 그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존중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했다. 이에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관계를 제안하는 사람과 그 제안을 받는 사람의 성별을 고정하지 않고 남성이 거절당하는 조건과 여성이 거절당하는 조건에서 거절 이후 행동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인 간 성관계 거절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탐색하였고,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

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성관계 가능성,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였던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요인 분석한 결과, ‘불쾌감 표출과 조종’, ‘관계 변화 우려’, ‘접근과 설득’,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의 다섯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할 것으로 가정하고 여성의 성행동을 평가했기에(양동욱, 2016; Van Wie & Gross, 2008; Winslett & Groos, 2008),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접근과 설득’ 행동은 거절당한 사람의 주요한 행동 요인 중 하나이며 전체 변량의 14.37%를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선행 연구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게, 거절당한 사람이 ‘불쾌감 표출과 조종’, ‘접근과 설득’과 같은 미성숙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와 같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성숙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이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접근과 설득’을 할 것이라는 가정은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에는 성숙한 반응과 미성숙한 반응이 혼재되어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였던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성별 조건에서, 다시 말해서 ‘남성이 거절당한 조건’과 ‘여성에게 거절당한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을 다르게 예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성이 거절당한 조건'에서 여성 참여자는 남성 참여자보다 거절당한 남성이 '접근과 설득', '관계 변화 우려', '불쾌감 표출과 조종'과 같은 미성숙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행동 중에서 여성 참여자가 가장 높게 예상한 행동은 '접근과 설득'이었다. 반면에 남성 참여자는 여성 참여자보다 거절당한 남성이 '존중과 수용', '기분 배려'와 같은 성숙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장 높게 예상한 행동은 '존중과 배려'였다. '여성이 거절당한 조건'에서 남성 참여자는 여성 참여자보다 거절당한 여성이 '불쾌감 표출과 조종'을 더 많이 할 것으로 평가했고, 여성 참여자는 남성 참여자보다 거절당한 여성이 '존중과 수용'을 더 많이 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남녀 참여자 모두 가장 높게 예상한 행동은 '존중과 수용'이었다.

이 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은 거절당한 사람이 상대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는 성숙한 행동을 상당히 할 것으로 예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참여자는 거절당한 남성이 상대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배려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평가했고, 반대로 여성 참여자는 거절당한 여성이 그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또 참여자들은 남성이 거절당한 여성이 거절당한, '불쾌감 표출과 조종'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거절당한 사람이 동성보다도 이성일 때 미성숙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남성 참여자는 거절당한 여성이 '불쾌감을 표출과 조종'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고, 반대로 여성 참

여자는 거절당한 남성이 그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해보면, 참여자들은 거절당한 사람이 동성일 때 성숙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것으로, 거절당한 사람이 이성일 때 미성숙한 행동을 더 많이 표현할 것이라며 내집단 편향을 드러냈다.

한편, 여성 참여자는 거절당한 남성의 반응으로 '접근과 설득'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했다. 남성 참여자도 거절당한 남성이 그렇게 행동할 경향이 다분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거절당한 여성의 행동 양상 평가에서 남녀 참여자 모두는 '접근과 설득'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 결과를 보면,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후 상대에게 '접근과 설득'하려는 경향은 남성에게만 국한된 특성이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는 거절당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성 참여자가 남성의 '접근과 설득'을 예상하는 강도와 남성 참여자가 여성의 '접근과 설득'을 예상하는 강도를 견주어 봤을 때, 거절당한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하자고 접근과 설득할 강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남성으로부터 성관계하자는 설득과 회유, 더 나아가 강요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할 때, 남성이 끈질기게 접근하고 설득하면 여성에게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전통적인 성 각본이 연인 관계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Emmers-Sommer, 2016; Wiederman, 2005).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의 거절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접근하고 설득하는 행동은 상대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이와 같은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성과 관련지어서,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는 상대를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설득한 사람과 설득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동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탐색했다. 즉, 상대의 설득으로 성관계에 응한 사람은 '이 성관계를 어느 정도 동의한 성관계로 지각할까?', 상대를 설득해서 성관계한 사람은 '상대가 얼마나 동의했다고 지각할까?'에 관한 물음이었다.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성별 조건에서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성관계 가능성,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지각한 상대의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여성 참여자는 남성 참여자보다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했고, 성관계하자고 설득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했다.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남성 참여자는 여성 참여자보다 성관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 여성의 설득으로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 결과를 연인 관계의 성적 의사소통 형식을 빌려서 설명한다면, 여성은 "나는 성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했어. 그런데도 네가 계속 설득해서 성관계한다면, 나는 33% 정도만 동의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내가 71% 정도로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남성은 "나는 성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했어. 그런데도 네가 성관계하자고 설득하면 나도 63% 정도는 성관계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네가 설득해서 결국 성관계한다면, 나는 60% 정도 동의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결과를 세 가지 차원에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성별과 관계없이 참여자 모두는 상대의 설득으로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전적인 동의 또는 상호 동의인 100%와 꽤 거리가 멀게 평가했다. 둘째, 남성 참여자는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59.52%로 약간 높게 평가했지만, 여성 참여자는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32.78%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여성 참여자는 설득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동의 수준을 78.09%로 꽤 높게 평가했고, 남성 참여자도 70.74%로 다소 높게 평가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의 설득으로 성관계할 때 걸은 동의한 성관계처럼 보이지만, 설득당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적인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 응한 여성은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에 응한 남성보다 설득에 의한 성관계를 동의한 성관계로 지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32.78% vs 59.52%). 중요한 점은 여성을 설득해서 성관계한 남성은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32.78%)보다 두 배 넘게 여성의 동의 수준을 높게 지각(70.74%)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남성을 설득해서 성관계한 여성은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59.52%)과 유사하게 남성의 동의 수준을 약간 높게 지각(61.84%)하는 경향이 있다.

싫다는 상대를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원치 않았다는 것과 '설득했다'는 단서에 기초하여

설득한 사람이든 설득당한 사람이든 설득에 의한 성관계를 전적인 동의 혹은 상호 동의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성관계는 상호 합의한 성관계(동의)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폭력(비동의)으로 이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의와 비동의 사이에 동의한 성관계처럼 보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설득으로 성관계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즉 성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성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을 희생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희생을 자처해서 성관계하는 것, 바로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 또는 '순응하는 성관계'의 문제이다. 이 결과는 연인 관계에서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가 남녀 모두의 문제이지만,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싫다는 여성을 설득한 남성은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성관계에 상당히 동의했다며 자기 분위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성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남녀 간 관점 차이가 성적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시사점은 변혜정(2003)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성이 순응, 이타, 강요의 이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할 때 여성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성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여성 참여자는 남성 참여자보다 여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고,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남성 참여자가 여성 참여자보다 남성이 지각한 동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인 관계에서 상대

의 설득으로 성관계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지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태도를 바꿔서 행동을 합리화하는 인지 부조화 관점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보려 한다. 하나는 상대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여 '성관계하고 싶지 않다'에서 '성관계하고 싶다'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 경우는 '성관계하고 싶다'는 태도와 '성관계'하는 행동이 일치하기에 설득당한 사람이 동의한 성관계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상대의 설득을 자율적으로 거절하지 못했을 때, '성관계'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관계하고 싶지 않다'에서 '원치 않더라도 상대를 사랑한다면 또는 상대를 배려한다면 성관계할 수 있다'로 태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사랑'과 '배려'로 포장하기 때문에 설득당한 사람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면서도 동의한 성관계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상대의 설득과 회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지만, '성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설득당한 사람은 성관계하고 싶지 않는 태도와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행동 간의 괴리로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하며, 그 불편함을 '성관계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남성 참여자는 성관계에 응한 남성이 '성관계하고 싶지 않다'에서 '성관계하고 싶다'로 태도를 바꿔서 동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남성이 설득해서 성관계할 때' 여성 참여자는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성관계하고 싶지 않다'에서 '상대를 배려한다면 성관계할 수 있다'로 태도를

바뀌어서 동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평가했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성폭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Buss(1989)는 친밀한 관계에서 싫다는 태도 상대가 성관계를 강요해서 상호 합의 없이 성관계했을 때,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느낄 것인지를 평가했다. 여성 참여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한 여성이 심각한 정도의 고통을 느낄 것으로 평가했지만, 남성 참여자는 성관계에 응한 남성의 고통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남성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동의한 성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컸는데,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은 곧 성관계를 원했기 때문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한편, 여성이 원치 않으면서도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한 이유를 살펴본 연구(공정식, 2017)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강압적인 성'과 남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배려적인 성'의 이유로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은 관계성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상당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인 관계의 상호 존중적인 성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과 후속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성교육 과정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성행동 상황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명확하게 동의를 구하고 상대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 여부를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여성에게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키우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진정한 동의의 요건'을 탐색하고 남녀가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둘째, 성관계 제안에 상대가 거절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접근과 설득'으로 성관계하려는 행동은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로 이어지며 상대는 데이트 성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평등적인 연애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의 거절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기분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함양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반응을 근거해서 상대의 반응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특히 남성은 여성의 '원치 않는 동의한 성관계'를 '동의한 성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성적 갈등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게 된다. 성관계는 교감을 나누는 친밀한 행동이기에, 무엇보다도 상대의 감정을 조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상대의 설득으로 성관계하는 상황에서 동의 수준을 해석하는 남녀 차이를 인지부조화 관점으로 설명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것이 타당한 설명인지를 질적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 지각에 어떤 관련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는지 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공정식 (2017).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상: 여성이 걸으며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 법, 8(3), 229-251.
-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 김정애, 이정열 (2014).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 및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대한보건연구*, 40(3), 71-80.
- 변혜정 (2003). '성폭력' 피해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 시사IN (2019.03.04.). 한국 사회 혼돈 '성인지 감수성'.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no=34029>
-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117-125.
- 안지인, 고영건 (2014).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33-251.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2), 205-224.
- 양동욱 (2016).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평가에 주변 단서가 미치는 영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3(8), 335-358.
- 유미영, 하정희 (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47-66.
- 유외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윤가현, 양동욱 (2016).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안나 (2013). 모델 이야기: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생들의 모델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여성학연구*, 23(1), 41-73.
- 이은진 (2015).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427-441.
- 이지은, 이은설 (2006).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Beres, M. (2010). Sexual miscommunication? Untangling assumptions about sexual communication between casual sex partners. *Culture, Health & Sexuality*, 12(1), 1-14.
- Birnbaum, G. E., Reis, H. T., Mikulincer, M., Gillath, O., & Orpaz, A. (2006). When sex is more than just sex: Attachment orientations, sexual experience,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29-943.
- Buss, D. M. (1989). Conflict between the sexes: Strategic interference and the evocation of anger and ups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34-747.
- DeSouza, E. R., & Hutz, C. S. (1996). Reactions to refusals of sexual advances among U. S. and Brazilian men and women. *Sex Roles*, 34, 549-565.
- Emmers-Sommer, T. M. (2016). Do men and women differ in their perceptions of women's and men's saying "no" when they mean "yes" to sex?: An examination between and

- within gender. *Sexuality & Culture*, 20(2), 373-385.
- Garcia, L. T. (1998). Perceptions of resistance to unwanted sexual advance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10(1), 43-52.
- Impett, E. A., & Peplau, L. A. (2002).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360-370.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Katz, J., & Tirone, V. (2010). Going along with it: Sexually coercive partner behavior predicts dating women's compliance with unwanted sex. *Violence Against Women*, 16(7), 730-742.
- Loshek, E., & Terrell, H. (2015). The development of Sexual Assertiveness Questionnaire(SAQ): A comprehensive measure of sexual assertive for women. *Journal of Sex Research*, 52(9), 1017-1027.
-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er Research*, 35(2), 71-81.
- Meston, C. M., & Buss, D. M. (2007). Why humans have sex.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6(4), 477-507.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 Burkholder, G. J.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Muehlenhard, C. L. (2011). Examining stereotypes about token resistance to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4), 676-683.
- Muehlenhard, C. L., & Hollabaugh, L. C.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72-879.
- Muehlenhard, C. L., & McCoy, M. L. (1991). Doble standard/double bind: The sexual double standard and women's communication about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3), 447-461.
- Muehlenhard, C. L., & Rodgers, C. S. (1998). Token resistance to sex: New perspectives on and old stereoty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3), 443-463.
- O'Sullivan, L. F., & Allgeier, E. R. (1998). Feigning sexual desire: Consenting to unwanted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5(3), 234-243.
- Rickert, V. I., Sanghvi, R., & Wiemann, C. M.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178-183.
- Shotland, R. L., & Hunter, B. A. (1995). Women's "token resistant" and compliant sexual behaviors are related to uncertain sexual intentions and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26-236.
- Sprecher, S., Hatfield, E., Cortese, A., Potapova, E., & Levitskaya, A. (1994). Token resistance to sexual intercourse and consent to unwanted

- intercourse: College students' dating experiences in three countri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2), 125-132.
- Struckman-Johnson, C., Struckman-Johnson, D., & Anderson, P. B. (2003). Tactics of sexual coercion: When men and women won't take no for an answer. *Journal of Sex Research*, 40(1), 76-86.
- Van Wie, V. E., & Gross, A. M. (2001). The role of woman's explanations for refusal on men's ability to discriminate unwanted sexual behavior in a date rape scenario.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4), 331-334.
- Wiederman, M. W. (2005). The gendered nature of sexual script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3(4), 496-502.
- Winslett, A. H., & Gross, A. M. (2008). Sexual boundaries: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talking before touching. *Violence Against Women*, 14(5), 542-562.
- 1차원고접수 : 2019. 04. 21.
심사통과접수 : 2019. 06. 05.
최종원고접수 : 2019. 06. 21.

Gender Difference in Evaluating the Behavior Patterns of Who Were Rejected When Sexual Advances and the Level of Consent to Sexual Relations by Persuasion: Focusing on Romantic Relationship

Dong-ouk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i-Seul Choe

Neuroscience Research Institute,
Gach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sexual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patterns of behavior of those whose sexual advances have been rejected. Study 1 investigated the behavior patterns of those who were rejected when making sexual advances by using a romantic relationship scenario. Study 2 explored how participants predicted the behavior patterns of those who were rejected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rejectee. We also analyzed how participants evaluated the level of consent to sexual relations depending on the viewpoint of those who made the sexual advance or those who compliance, when the sexual relations by persuasion. The behavior patterns of those who were rejected were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including 'showing discomfort and manipulation', 'concern about changes in relationship', 'approach and persuasion', 'respect and acceptance', and 'consideration of feeling.' In condition where the man was rejected, male participants were most likely to do 'respect and acceptance' behavior, whereas female participants were most likely to do 'approach and persuasion' behavior. In condition where the woman was rejected, both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were likely to do 'respect and acceptance' behavior. In condition where man had a sexual relation with women through persuasion, female participants rated the perceived women's level of consent who complied with the sexual relations lower than male participants. They also rated the men's perceived women's level of consent higher than male participants. In condition where woman had a sexual relation with men through persuasion, the male participants rated the perceived man's level of consent who complied with the sexual relations higher than female counterparts. Such results were discussed in sexual scripts and cognitive dissonance, and suggested of the risk of date rape.

Key words : *approach and persuasion, date rape, level of consent, refusal of sexual relation, sexual communication*